

깊은데로 가라 (Into the Deep)

눅 5:1-11; 이사야 6:1-8

Feb 10, 2019 MSPC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깊은데로 가라고 나중에 베드로라 이름이 바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깊은데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기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고기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시몬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수 많은 군중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가에에 몰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서서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띄어 올라 가르치면 군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느라 지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의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아마도 그런 인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몬 베드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떨결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물론 이 말씀은 시몬에게 아주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 그러나 시몬은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 동료의 배까지 동원하여 두 배에 가득채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깊은 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니까?**

깊은 데는 경험을 넘어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 너무나 넓습니다.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말할 만큼 큼니다. 길이가 13 miles 가 됩니다. 폭이 7 miles 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700 feet 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고기 잡는데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고기를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어부로 산 베드로에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생어부인 베드로에게, 어부 경험도 없는 예수님께서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은 너무 잘 보여 물고기들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물한번 던져보지 않았을 법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밤새 그물을 수없이 내리고 또 내렸습시다. 그러나 빈배입니다.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시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 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Master, we have worked all night long but have caught nothing. Yet if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베드로는 처음에 그 다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을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시다. 순종했습시다.

정말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 지 빈배로 돌아온 동료들 불러서 그물을 함께 텅니다. 그물을 터니 두 배에 가득채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시다 베드로 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 까지도 채울만큼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혔습시다.

배와 그물을 베드로에게 먹고사는 수단입니다. 직업(job)입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먹고 살고,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시다. 그런데도 빈배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빈배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노력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의 오랜 어부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보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배가 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수십년 경험을 한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수십년 경험을 가지고도 한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경험과 노력이 허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만 의지하고 내 실력만 의지하고 살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상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듯, 말씀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직장생활하고, 말씀에 따라 가정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점에도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온 게 다행입니다. 빈배로 와서 실망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빈배가 됐으니, 예수님도 태우고, 빈배가 됐으니 그물이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빈배와 같다 생각될 때 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살았는데, 얻어진 것 없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해가고 쌓아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빈배라고 느낄 때, 그 때가 오히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태울 때 입니다.**

주님은 깊은데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따라 깊은데로 가려면,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 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다 뒤로 던져 버리고 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깊은 곳으로 들어 갈
때,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데로 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밤새 일하고 지쳐도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깊은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순종을 할 때 교회의 배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배에 고기가 가득 차듯,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처럼 순종해 깊은 데로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깊은데로 가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데는 고기가 잡히는 물리적으로 깊은데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깊은데 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적, 영적인 깊은 세계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우리가 물고기 한마리 못잡습니다.

신앙생활도 얕은 물가에 머무르면, 영적으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깊은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신앙생활가운데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래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 고기한마리 못잡는 그런 생활을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란 말씀은 물고기 많이 잡아라고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배에 넘치도록 고기잡는 기적을 통해, 시몬을 깊은 영적, 정신적 세계로 이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그저 좋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며 놀라고 두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5:8) 합니다. 베드로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베드로 눈에는 그물 가득한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어떤 영적인 각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저절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Go away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저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야 말로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기도중에 환상을 보게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위에 앉으셨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 천사들은 여섯 개의 날개 중,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두 날개만으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성전엔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이사야 6:5)

입술의 죄는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유대 공동체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니, 남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망할 자가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자, 한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불로 지져서 깨끗합니다.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대며 말합니다. ".....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6:6) 이사야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영적인 깊은데는 이렇게 회개가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니, 선생님 대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죄를 깨닫고 나니, *"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스랍 천사가 이사야 입술을 태운 것 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사야 고백처럼 그 죄 때문에 망할 수 밖에 없는, 화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깊은데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는 시몬을 주님은 위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눅 5:10) 베드로는 이 때 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제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는 어부일을 놓고, 배를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하던 일을 놓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직장, 내가 많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그곳이 깊은데 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부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바로 사명의 깊은 자리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얇은 물가에 살 때,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최고 관심사인 인생은 영적인 얇은 물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낚는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깊은데는 관심이 물고기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관심이 바뀌는 곳입니다.**

얇은 물가의 인생은 세상 성공과 성취가 인생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딱 거기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거기까지가 목표입니다. 영적 깊은 곳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목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최고 관심으로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깊은데 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왜 주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왜 주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커다란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왜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를 치유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나의 삶속에 물고기가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깊은데로 이끌기 위해서 입니다. 그 깊은 곳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면, 생명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경험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얕은 물가를 벗어나 깊은데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만 잡는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깊은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데가 많습니다. 피곤해서, 귀찮아서, 또 내 고집 때문에, 내 경험만 의지하다 얕은 물가에만 머물니다. 때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데로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우리 인생의 배의 항해사인 이제 우리 인생이란 배를 온전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다짐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삶을 형통하고 평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가 얽은 물가운데 머무르는 열매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깊은데로 들어가 주님께서 예비신 축복과 변화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사. 복에 복을 더 하시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따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물에 물고기가 넘치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속한 가정과 자녀들 주님께서 항해사가 되셔서 삶의 순간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세상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깊은데서 살아하시고, 무엇을 하든 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마음과 육신을 살피 주시고 위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 저희와 사업과 직장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지 그 자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리가 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